**진정한 영적 권위(2) /릭 조이너**

****

† 진정한 영적 권위(2)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때,

그분은 또한 권위를 가지도록 은혜와 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을 확립시키신 분이심을 아는 것보다

더 안전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수단이나 교묘한 조작에 의해 우리가 얻은 지위를 유지하려고

시도하는 것보다 더 빨리 위험을 낳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에 존재하는

지역적인 보존과 분열의 대부분의 뿌리입니다.

진정한 영적 권위 가운데 세워지는 것은

적이 쉽게 침투할 수 없는 요새입니다.

바울은

롬1620. 그리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으깨게) 하시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호의)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적을 완전히 부수는 평강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과는 대조적으로, 우리가 권위의 위치에서 우리 스스로를 세울 때,

우리는 평화를 거의 가지지 못합니다.

불법적으로 획득한 우리의 영향력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것을 유지하는 데는 더 많은 애씀과 더 많은 교묘한 조작이 있게 됩니다.

교묘한 조작을 통하여 우리가 행하는 어떤 것도,

-그것이 비록 고결한 목표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마법에 의한 위조된 영적 권위 안에서 행하여지고 있으며,

궁극적 실패로 운명지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법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첫번째 원칙은

우리 자신들의 삶과 사역들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사용해 왔던 모든 방식들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릭 조이너가 지은 “거짓된 영적 권위로부터 자유” 중에서...)